

러시아 · 중앙아 진출전략 상담회 6월26일 개최

KOTRA(코트라)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6월 25-26일 염곡동 본사에서 <러시아 ·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담회에는 러시아연방정부 특별경제구역관리청(SEZ) 네나셰프 청장고문이 러시아가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조성한 SEZ 운영시스템과 투자 유인책을 소개했고, 파이낸스앤크레딧 이사회 쉬카린 의장은 전력, 광물산업 등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투자청장이 직접 나와 국내기업의 현지 투자를 호소했다.

KOTRA 민경선 클로벌 코리아 본부장은 “최근 유가, 곡물가, 각종 원자재 인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탓인지 해외시장으로 나가려는 기업이 많아 행사 참가율도 높았다”며 “설명회에 이어 상담회까지 진행되는 행사로 자원개발, 산업협력, 기술, 물류, 제조 등 분야의 투자진출에 국내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모스크바에서는 대규모 러시아 투자설명회 및 유망프로젝트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내기업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6/25>